Who am i?

최병철

개발자 출신 기획자

기술과 감성을 잇는 기획자, 15년 넘게 사용자와 서비스의 접점을 설계해왔습니다.

- ✓ 개발자 출신으로 기술 구조와 유지보수 관점까지 고려한 설계 가능
- ✓ 모바일/웹 콘텐츠 서비스 기획 경력 10년 이상
- ✓ 사용자 경험(UX) 중심의 흐름 설계 및 커뮤니티 구조 기획
- ✓ 실제 서비스 출시부터 운영, 고도화까지 주도한 경험
- ✓ 창업 및 팀 리딩 경험 다수
- ✓ 데이터 기반 피드백 루프 설계에 익숙함
- ✓ Figma, Notion, Jira 등 협업 및 프로젝트 관리 도구 활용 가능

1. 쇼핑맵 – 소셜커머스 통합 플랫폼 (2010~2011)

상품 데이터를 자동 수집·정제하여 보여주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까지 맡았습니다.
UI/UX 설계, 파트너사 연동 구조 설계, 트래픽 분석 기반 기능 개선까지 전방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시 랭키닷컴 9위 기록과 490MB급 순간 트래픽을 기록하며 시장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2. 퍼스트몰 3.0 프로젝트 (2009~2010)

가비아 쇼핑몰 솔루션의 회원/제휴 모듈과 관리자 기능 개편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관리자 관점이 우선되던 구조에서 사용자 흐름을 고려한 UI 개선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 웨빗 - 온라인 영수증 검증 플랫폼 (2021)

온라인에서 발행된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위변조 여부를 블록체인으로 검증하는 서비스입니다. 기획자이자 설계자로 참여했으며, 해시 기반 저장 로직과 사용자 보상 구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4. 포피플 – 시니어용 기능성 수면제품 기획 (2024~)

TPE 소재 기능성 베개 및 매트리스 상품을 기획하고, 타겟팅, 유통 전략, 콘텐츠 기획까지 직접 담당했습니다. 서비스/제품 기획에서 시장 니즈 분석까지 전과정을 경험했습니다.

5. 스마트카라반 시스템 (2021~2022)

캠핑 카라반 제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UI 흐름과 전기 제어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하며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고려했습니다.

Daum앱은 저에게 익숙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Daum카페는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 진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연결되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글을 쓰고 반응을 보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만들어보면서 '플랫폼이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경험이 콘텐츠 서비스 기획자로서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능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흐름과 기술 사이를 조율하고, 방향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해왔습니다.

개발자 출신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획, 오래 갈 수 있는 구조, 운영에서 버티는 설계를 고민해왔습니다.

<u>창업을 통해 여러 팀을 만들고 이끌면서 기획은 곧 전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u> 어떤 타이밍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걸 누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Daum앱은 이제 다시 한번 사람과 콘텐츠의 연결을 리드할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연결을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게 만드는 기획과 흐름 설계를 맡고 싶습니다. <u>기획자이자 시스템을 아는 조율자로서, 사용자와 개발자, 콘텐츠와 커뮤니티 사이를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u>

감사합니다